

야곱의 꿈 (창28:10-19)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밀어내고 대신 들어왔다, 속이다’의 뜻을 가진 야곱으로 이름지어졌습니다. 야곱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격적인 면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되기에는 부적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격한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야곱을 만들어 가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산 야곱은 실재적인 그 장자권이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넘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에서 쫓겨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만 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벵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피곤하여 돌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불안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신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통하여 야곱은 자신이 이 세상과 관련된 자가 아니라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쫓겨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있습니다. 요1:47-51에 나타나는 나dana엘입니다. 나dana엘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참 실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처럼 쫓기는 인생을 사십니까? 피곤하여 방랑 길에 돌 베개를 하고 자는 처지입니까?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그것을 하늘로 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다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